

“美정부 지원 코로나 백신 4종 실패할 수도”

CNBC 방송 정부 보고서 공개
6개사에 수십억달러 지원
“7종 중 3종만 성공 가능성”
3개사 백신 임상 3상 시험

미국 정부 지원 아래 개발 중인 코로나 19 백신 7종 중 4종이 긍정적인 결과를 내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 집단의 진단이 1일(현지시간) 나왔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보건 관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전미과학공학의학협회(NASEM)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1종에 대해 공식 사용 승인이 날 경우에 대비한 연방 정부의 백신 배포 계획을 담은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보고서 초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이 3만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인 백신 최대 7종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 중

4종은 실패하고 3종만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NBC도 과학저널 생물통계학(Biostatistics)에 발표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감염병 백신이 임상시험과 당국 승인을 거쳐 성공하는 비율은 33.4%에 그친다고 소개했다.

보고서 초안에는 또 승인받은 백신이 4단계에 걸쳐 보급되며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취약계층과 의료 종사자들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는 것으로 기술돼 있다. 미국은 초고속 작전의 일환으로 지난달

기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한 6개사의 백신 후보 물질에 수십억 달러를 이미 지원했다.

이중 화이자 등 3개사 백신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갔다. 미국 보건 당국자들은 올 연말까지 최소 1종, 내년 초까지는 2종 이상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그러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 희망은 있을 수 있지만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UAE 수교 논의 이스라엘 메이어 벤-사랏 국가안보보좌관이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수도 아부다비를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 UAE 인사와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UAE와 이스라엘의 수교를 논의하기 위해 벤-사랏 보좌관이 이끄는 이스라엘 대표단과 미국 대표단은 아부다비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다. /연합뉴스

“밤중 스마트폰 사용 정자의 질 떨어진다” 이스라엘 연구소 분석

저녁과 밤중에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같은 전자 기기에 노출되면 정자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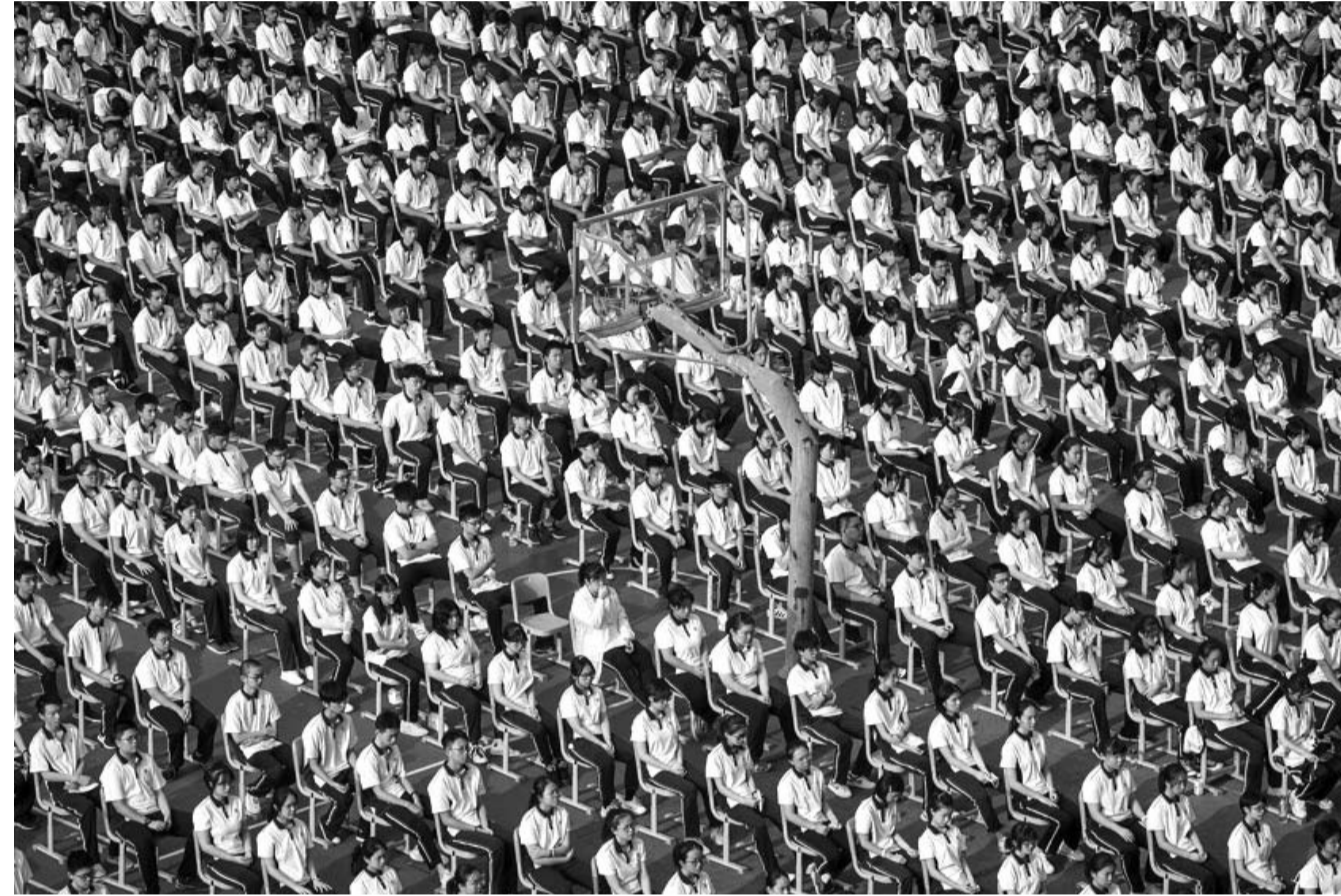
이스라엘 텔아비브 아수타(Assuta) 메디컬센터 수면-피로 연구소가 생식 능력 평가를 받는 21~59세 남성 1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면습관과 전자 기기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와 정자의 질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데일리가 보도했다.

저녁이나 밤중에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단파장 광선(short-wavelength light)을 방출하는 전자 미디어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정자의 밀도와 운동성(motility)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을 이끈 야미트 그린 연구실장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전체 정자 중 유영 능력이 떨어지는 정자의 비율이 높았다. 저녁에 TV를 보는 시간이 많아도 정자의 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수면 시간도 정자의 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면 시간이 긴 사람은 짧은 사람보다 정자의 수가 많고 정자의 운동성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이 많아도 정자의 질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수면의학학회(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와 수면 연구학회(Sleep Research Society) 회상 학술회의에서 발표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가 1일부터 일제히 개학했다. 이날 등교한 우한 교외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의자에 앉아 가을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코로나 진정세에 3억명 학교로... 첫 수업은 전염병 대응

초·중·고·대학교 일제히 개학
우한 의료진 강의 애국심 고취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이달부터 3억명의 학생이 일제히 등교를 시작했다. 개학 후 첫 수업은 전염병 대응에 관한 것으로 중국의 코로나19 방제 성과와 중국인들의 헌신 그리고 예방법 등이 주를 이뤘다.

2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은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 전국 각지의 초·중·고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유치원까지 문을 열어 3억명이 교정으로 돌아갔다.

특히 지난 1월 말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던 우한의 2800여

개 학교와 유치원도 문을 열어 중국 내 코로나19가 사실상 종식 단계임을 보여줬다. 주목할 점은 신학기 첫 등교일에 학생들이 전염병 대응과 홍수 대처에 관한 수업을 중점적으로 들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의료진이 직접 연단에서 학생들에게 전염병 대처법을 알려줬다.

베이징 창평 지역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1일 개학 날에 우한 코로나 치료 현장에서 고생했던 한 간호사를 초청해 ‘나의 전염병 대처 이야기’를 주제로 수업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중국 남부 지방이 대규모 홍수 피해를 본 것을 고려해 ‘홍수 대처’를 개학 첫 수업으로 삼은 학교들도 있었다.

지난 7월 안후이성에 50년 만에 가장 큰 홍수가 덮쳐 큰 피해를 봤던 한 중학교는 지난 1일 첫 수업에 홍수 당시 군인과 경찰이 대입 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밤새 위 부교를 만들어줬던 내용을 소개했다.

중국은 신학기 안전한 등교를 위해 철저한 코로나19 방제 조치를 하고 있다. 대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에게 개학 전 14일간 매일 체온을 재고 건강 상황을 학교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중고교 교직원들은 개학 전에 자체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개학 후 교정에서는 등교시 체온 측정 을 하고 스마트폰의 건강 코드 미니프로그램(젠강바오)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폐쇄식 학교 관리를 통해 외부인의 교내 진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고에 수십년간 잠자던 렘브란트 위작 ‘수염을 한 남자...’ 알고보니 진품 가능성

기존 작품과 같은 나무틀 사용

17세기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인 렘브란트의 위작으로 여겨져 수십년간 미술관 창고에서 잠자던 작품이 사실은 렘브란트 작업장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1일(현지시간) AFP 통신,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대 예술물린 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초기 렘브란트’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에서 관심을 끄는 작품은 ‘수염을 한 남자’다. 수염을 한, 지치고 우울한 모습의 남성을 그렸다.

당초 이 작품은 1951년 예술물린 박물관에 넘어온 것으로, 렘브란트의 초기 그림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81년 ‘렘브란트 리서치 프로젝트’가 해당 작품을 위작으로 판명하면서 수십년간 박물관 지하창고에 방치돼 왔다.

2015년 예술물린 박물관의 북유럽 미술 담당 큐레이터로 합류한 안 판 캠프는

서 크기의 ‘수염을 한 남자의 머리’가 전형적인 렘브란트 작품의 특징을 갖고 있어 위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연륜 연대학자인 피터 클라인에게 분석을 의뢰했고, 클라인은 작품의 나무틀이 렘브란트의 ‘뮤인 안드로메다’와 안리벤스의 ‘렘브란트 모친 초상화’와 같은 나무에서 유래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렘브란트와 리벤스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네덜란드의 레이던에서 같이 작품 활동을 했다. 두 작품은 모두 1630년 전후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됐다.

‘수염을 한 남자의 머리’ 그림틀 역시 두 작품과 마찬가지로 발트해 연안 지역의 오크나무로 만들어졌으며, 1620~1630년으로 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81년 ‘렘브란트 리서치 프로젝트’가 해당 작품을 위작으로 판명하면서 수십년간 박물관 지하창고에 방치돼 왔다.

2015년 예술물린 박물관의 북유럽 미술 담당 큐레이터로 합류한 안 판 캠프는

홍콩 무료 코로나19 검사 첫 날 ‘복새통’

홍콩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코로나19 검사가 시작된 첫날 검사장이 복새통을 이뤘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지난 1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홍콩 전역 141개 검사소를 통해 12만6000명이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1일 오후 8시 현재 온라인을 통해 검사를 사전 신청한 사람은 67만4000명이라고 전했다.

홍콩 인구는 750만 명이다. 당국은 6세 이상 시민은 모두 검사에 참여할 것을 독

려하고 있다.

아편 등 일각에서 이번 검사에 대해 보이콧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첫날 대부분의 검사소에는 줄이 길게 이어졌고, 현장 신청자도 8000명 정도 몰리면서 온라인 신청자들이 예약 시간보다 1시간여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펼쳐졌다.

당국은 첫날 검사를 예약한 온라인 신청자의 90%가 검사를 받으러 왔고, 많은 검사소의 온라인 예약이 정원을 채운 점 등을 들어 오는 3일부터 검사소당 하루 검사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